

마렉백신 세일즈 5년 (II)

고 규 락
(축산기기사 대표)

1. 냉동건조백신의 시장개척

TAD 냉동건조백신이 입수되자마자 가축위생연구소에 검정을 의뢰하는 한편 판매를 위하여 '월간 양계' '현대양계' 등의 월간지에 광고를 게재하였다.

TAD 냉동건조마렉백신이 수입되기 전까지는 DEPTA 백신만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접종부화장이 거의 한정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한미계약(주)에서 보유한 액체질소 콘테이너의 보유수가 몇개되지 않았고 또 그때만 해도 마렉백신 접종은 마렉백신 취급당무자만이 직접 접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백신 접종 과정에서 폐사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처음 마렉백신이 수입되어 시험접종을 하는데 접종 부위를 어디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에 대해서 이론이 많았었다.

마렉백신접종 안내서에는 피하 또는 근육주사로 명시되어 있어 피하주사보다는 근육주사는 것이 효과면으로 좋을 것 같아 흉부(胸部) 근육과 대퇴부(大腿部) 근육에 접종하여 시험해보기로 하였던 것이다. 처음 가슴근육에 접종한 계군에서 폐사가 많이 나왔다. 해부해본 결과 복강(腹腔)에 까지 약액이 침투되어 있었으며 또 허벅다리근육에(주사한) 것 중에서도 다리 절름바리가 많이 나와 이것 역시 해부한 결과 주사침이 너무 깊이 들어가 뼈를 다친 것이다.

그래서 목뒤 피하에 접종을 하였던 바 약간의 폐사는 있었으나 위와 같이 근육주사한 것보다는 폐사수가 훨씬 적었으며 능률적이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 방법이 채택된 것이다. 현

재에는 부화장에 근무하는 직원이면 누구나 거의 숙달되어 시술과정에서는 오접종(誤接種)으로 인한 손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또한 이 마렉백신은 병아리 발생 24시간 이내에 접종해야 된다는 시한문제(時限問題)와 감별추(종계는 암수전량 접종)에만 접종해야 된다는 제약(制約)과 감별이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접종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루 몇군데 부화장을 순방하여야 되는데 병아리 발생과 감별의 지연등으로 마렉백신 접종 역시 따라서 늦어지게 되어 밤낮없이 뛰어도 예정대로 접종을 해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늘어나는 거래처를 한미계약(주) 단독으로는 도저히 공급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이러므로 TAD 냉동건조백신의 등장이 마렉백신판매의 경쟁자라고 하기보다는 협조자였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우리는 TAD 냉동건조백신의 검정이 끝나자마자 즉시 판매를 개시 하였다.

TAD백신의 효과를 인정받기까지는 백신을 접종한후 2~3개월이 경과 되어야 하는데 마렉백신의 접종 반년가까이 먼저 들어와 선망의 대상이 되어 본격적인 공급단계에 있던 DEPTA백에 의해 이미 널리 알려진 뒤라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DEPTA 백신의 인기절정에 힘입어 편승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여건으로 TAD 건조백신은 타상품의 시장개척과 같은 어려운 난관이 없이 비교적 손쉽게 실수요자에게 침투가 가능했던 것

이다. 솔직히 말해서 DEPTA백에 의해서 효과가 인정되고 DEPTA백의 공급능력 때문에 지방 부화장으로 부터 공급요청이 날로 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그 부화장이 5년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사의 고정거래처가 되어있지마는.....이 TAD냉동건조백신을 최초로 접종한 부화장이 전북의 K양계센터, 경기도의 H농원, 충남의 B부화장, 대구의 S부화장 경남의 D부화연구소, 전남의 I부화장, 강원도의 C부화장과 K부화장, 부산의 D부화장과 B양계센터 등, 주로 DEPTA백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지방의 부화장들이었다.

물론 경기, 서울지방에 있는 대규모 부화장은 DEPTA백의 고정거래선으로 확고부동하기때문에 지방부화장에 주력을 두었던 것이다.

2. 출장접종시 잇을수 없었던 일

가. 비행기를 타고 출장접종

TAD냉동건조백신의 판매를 개시한지 얼마 후 전라도 소재 I부화장으로 부터 시간이 급하여 출장비 일체를 부담하겠으니 항공편을 이용해서 출장접종을 해달라는 장거리 전화를 받았다. 그것도 수량이 많지도 않은 단1,200여수의 병아리에 대한 접종을 위해서였다.

우리는 접종수량의 TAD냉동건조백신이 전혀 낯도 모르는 지방의 작은부화장에서까지 갈채받는 총아가 되었다는데 흡족해 하였던 것이다.

부푼가슴을 안고 김포공항으로 달려가 여객기에 몸을 실었다. 근 10여년 만에 타보는 비행기라 처음 탈 때와 같이 호기심이 가지는 않았지만 비행기를 탄다는 기분보다는 우리의 TAD백신이 이토록 귀한 존재로 양계업계에 군림했다는 것에 더 자승이 벅찼던 것이다.

오랜만에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경치도 장관이었다. 모내기를 마친 우리나라 곡창지대인 호남평야의 푸르름이 더욱장관이었다. 이윽고 광주 비행장에 도착하니 장내방송으로 나를 찾는 것이다. 물론 I부화장의 C 사장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기때문에 부득이하였던 것이다. 귀빈과 같이 후한 대접을 받으며 부화장

에 당도하여 접종준비를 하였다. 마렙백신을 구경하기 위하여 모여든 양계업제인들이 2ml 정도의 유리병 안에 단추 한 개 정도의 크기만한 백신에 모두들 놀라는 것이었다. 설마 저것이 2만원(500수포장 1병)이라니 금값이 비교가 안된다고 모두들 놀라는 표정이었다.

서툰 솜씨에 주사기역시 VINELAND 사제의 마렙백신용/접종주사기를 구할 수 없어 뉴켓슬 백신접종주사기로(2ml서독제 연속 주사기)800여수를 접종하고 남은 400여수는 직접접종 하라고 약을 남겨두고 귀사하였다. 물론 약값과 출장비는 즉시 결재를 받았다. 얼마후 C 사장이 회사를 방문하여 TAD백신 1,000수분이필요하니 의상으로 달라기에 서슴치 않고 내주었다. 뿐만 아니라 전에 받은 후한 대접도 있고해서 나역시 성의껏 대우를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그 백신값을 지불하지 않고있다.

덩치에 비하여 너무 값비싼 물건으로 대금 결재하기가 좀 억울했었던지 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개운치 않은 기분이다. 후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마렙백신 접종직후 폐사가 많아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다. 내용인즉 백신접종을 아니한 병아리는 전혀 폐사가 없었고 백신접종한 병아리만 폐사가 나와 약대지불을 기피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후에 회사까지 찾아와서 백신을 의상으로 가져가면서 그 사실을 일체 말하지 않고 뒷전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었다.

나. 예기치 않던 사고

전라도 출장보다 얼마 전의 일이었다. 경남 D부화장에서 출장접종요청이있어 드라이아이스에 포장한 TAD냉동건조백신 1500수(500수포장 3개)와 희석액 및 접종장비를 손가방에 챙겨넣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D부화장에 당도했다. 역시 후한 대접을 받으며 그 부화장의 고객은 물론 그지방의 가축 병원장까지 초대하여 인사소개까지 받았다. 회귀약인 마렙백신을 보기 위해서였는지 혹은 부화장에서 병아리 판매를 위한 방법으로 초청한것인지 많은 양계인이 와 있었다.

나는 주사기 소독과정으로 부터 백신의 희석

접종, 빈 약병의 폐기 까지 백신메이커의 지시 사항 그대로 실시 하였다.

여러 사람 앞에서, 더구나 기념촬영까지 받아 가면서 접종을 하려니까 자연 떨리기 시작 하였다. 그 보다 더한 것은 한줌도 안되는 어린 병아리에 0.2cc도 안되는 적은 양의 백신을 주사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또 부화장에 접종장면을 지켜보는 현지 양계인들의 관심거리였기 때문이었다. 약 3시간에 걸쳐 접종을 끝마치고 약값을 받아 훌가분한 기분으로 돌아왔다.

그후 2일이 경과하여 백신을 접종한 병아리 중에서 폐사가 많이 나왔다는 전갈이 왔다. 즉시 내려와서 병인규명과 사후처리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착잡한 심정으로 D부화장을 방문 정중한 사과를 드리고 현장에 가서 폐사현장을 살펴보았으나 폐사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다.

수의사도 아닌 내가 병인을 규명한다는 것도 무리이긴 하지만 현지의 가축병원수의사 역시 진단이 어려웠던 것이다. 추백리와 같이 흰 배설물로 항문주위가 더럽혀져 있을 뿐 다른 증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 더우기 나는 처음 당하는 일로 당황하게 되었다. 언뜻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폐사후에 대한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고내용이 양계업계에 알려졌을 때, 새로 등장한 TAD백신은 우리 양계업계에서 영영 발을 붙일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폐사량이 1500수 중에서 259수로 근20%에 가까웠다. 이 병아리의 사육주는 그 고장에서 양계경력이 가장 많고 또 규모가 가장크며 경남 일대에서는 손꼽히는 축산가로 널리 알려진 H씨이었다.

나는 부화장측과 보상문제를 먼저 협의하였다. 폐사추를 300수로 간주하여 수당 160원(병아리대 120원, 백신대 40원)씩 48000원을 변상하기로 약속하고 귀사하여 상사에 승인을 받아 즉시 변상을 하였다. 다만 우리회사의 사업을 위하여 비밀보장 해줄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되어 이 사실이 동료부화업자간에 알려져 백신판매에 한고비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역시 속담에 '말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과 같이 약장사보다는 동료 부화업자 편이 더 가까웠을 것이다. 1500수분이 백신대금이 60,000원으로 그중 48,000원을 변상해 준다면 적자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다음 의 사업을 위해서 무형투자액으로 간주하는 도리밖에 없었다.

그후 약 5개월 후의 일이다. 기적이 생긴 것이다. 비가 내리는 어느날 문제의 마래백신 사고로 피해를 입은 H씨가 회사를 방문 TAD냉동건조백신을 다시 접종해 줄 것을 요청 하는 것이었다.

이유인즉전번사고로다른메이커의냉동건조백신을 접종한 결과 접종시의 사고는 없었으나 백신의 면역효과가 나빠서 초산직전까지 마래병으로 많은 폐사가 나와 큰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먼저 접종한 문제의 TAD 백신을 접종한 닭은 그후 경과가 좋아서 마래병으로 인한 폐사는 물론 백혈병으로 인한 폐사까지도 전혀 없어 또 다시 우리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말을 듣고 너무나 기뻐다. 이런일을 두고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새옹지마라고 하는 것인가 혼자 생각도 해 보았다.

나는 H씨의 요청에 따라 한동안 꿇겼던 거래선을 다시 찾게 되었고 이일이 계기가 되어 아직까지 어느 거래선보다 더두터운 우의로 백신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Ⅱ. 한 거래처에서 경쟁업체 백신과 함께 접종.

백신을 시판한지 며칠 안되어서의 일이다. 춘천 C 부화장으로 부터 출장접종을 의뢰 하는 전갈이었다. 기쁜마음으로 C 부화장에 당도하여 백신접종의 준비를하는데 갑자기 DEP TA백의 액체질소 콘테이너를 들고 두사람이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나는 손가방하나에 3500수분을 넣고 가벼운 걸음으로 왔는데 DEPTA백은 신진에이스차에 두사람(수의사 1명, 운전수 1명)이 왔던 것이다. 나는 이때 액체질소통을 처음 보았고 동결백신(DEPTA백)의 회석과정과 접종 방법

마레백신용 접종주사기 역시 처음 구경 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DEPTA 백 세일즈맨과도 처음으로 인사를 교환하였던 것이다.

나는 C 부화장의 처사가 몹시 마음에 걸렸다. 왜냐하면 이날백신을 접종할 병아리가 불과 3,500여수 있는데 양쪽 백신공급처에 출장접종을 의뢰하여 서로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다니! 나중에 알고 보니 C 부화장의 처사에 대하여 나의 추측이 틀린 것이었다.]

DEPTA 백 측에서는접종일을 기억하고 있어 3500수 접종에 백신재고가 2000수 뿐으로 전량 접종이 불가능하여 출장접종을 포기하였다가 재고량 2000수분이라도 접종해줄 계획으로 예고없이 왔던 것이고 C 부화장 측에서는 DEPTA 백의 재고두절로 접종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TAD백신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어차피함께 모인터라 나는 DEPTA 측에 2,000 수분을 양보하고 나는 1,500수분만을 접종하기로 하였다. 나는 이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DEPTA 백 접종담당자 (수의사 1 명과 운전수)는 5 개월여의 접종경력과 접종주사기로 2,000수를 불과 1 시간이내에 접종을 끝마쳤는데 나는 이들의 절반량도 못되는 500여수를 접종하였던 것이다.

그것마저 처음 접종하는 것으로 혹시 목뒤 척추뼈를 찌르지 않을까 염려하여 병아리가 터질세라 살그머니 들었다 놓았다하니 능률이 오를리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접종주사기 역시 VI NELAND 사제의 마레백신용 연속주사기가 아니고 투박한 철제주사기 (2ml 뉴켓을 접종용)를 사용하려니 흡입력의 부족과 번거로운 고무호스 줄로 거치장스럽기만하여 DEPTA 백 접종인들을 보기가 민망하여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손이 떨리었다.

나의 이러한 꼴을 보다못해서인지 C 부화장의 정군이 VI NELAND 주사기를 빌려들고 나의 접종을 도와주었으며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DEPTA 백의 동료역시 달려들어 손 쉽게 접종을 마쳤던 것이다. 나의 이 최초의 백신접종을 병아리도 대과없이 커서 좋은 산란성적을 보여주었는지 그후 별 말이 없었으며 그 부화장에서 계속 우리 TAD 냉동건조백신을 접종하였다.



청량리가 축약품

◎ 허혈기병 (CRD) 특효약
◎ 바다리병 (포도상구균병) 특효약
이원진에 판매중

◎ 지방주문환영

서울 · 동대문구전농 2 동 597의 32

(한국육계회 연락처) TEL. 96 - 8780

